

백화, 정 씨, 영달은 함께 떠돌며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된다.	영달은 백화를 도와주고, 영달에게 호감을 느낀 백화는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한다.	영달은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진 돈으로 기차표와 먹거리를 사주고 백화를 보낸다.	영달과 정 씨는 정 씨의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려 한다.	정 씨는 대합실에서 만난 노인에게서 삼포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다.
---	--	--	---	--

등장인물의 특징

백화	술집에서 도망쳐 나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함. 동생이 많은 농사꾼 집의 딸임. 고향에 갈 여비조차 없는 딱한 처지임.
영달	공사판을 전전하며 떠도는 막노동꾼임. 말은 거치나 따뜻한 마음을 지님.
정 씨	떠돌아다니는 막노동꾼임. 고향인 삼포에 가서 정착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



<p>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님.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 고향을 잃음.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임.</p>
--

영달의 행동과 그 이유

백화의 제안	영달의 반응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했 드릴게.”	“저 여잘 보냅니다.”



영달의 반응 이유
<p>“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백화와 살림을 차리려면 최소한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함.</p>

작품의 주제

정 씨가 생각하는 ‘삼포’의 모습	→	변화된 ‘삼포’의 모습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 시골 마을 나룻배로 왕래해야 하는 섬마을	→	관광호텔을 짓는 공사판 사람들로 북적임. 예전엔 섬이었으나 신작로가 생기고 육지에서 쉽게 왕래할 수 있음.



‘삼포’가 상징하는 것
<p>정 씨와 같은 서민들의 고향, 안식처 산업화로 인해 포근함, 안락함을 잃어버린 고향→근대화로 인해 복원적 가치가 훼손된 고향과 당대의 시대 상황을 의미함.</p>



작가의 의도
<p>삼포의 변화와, 정착할 곳을 잃은 정 씨와 영달의 모습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이들의 보습을 드러내려고 함.</p>

제목의 의미 파악

삼포로 가는 길
----------



<p>→세 사람의 모습이 이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제시됨. 길을 가며 이야기가 펼쳐지는 여로형 구조를 땀.</p>
---

삼포는 이들이 찾아가는 안식처이나, 이곳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작가의 주제 의식이 드러남.

‘길’의 의미

일반적인 경우 : 인생의 축소판이자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며 교감을 나누는 공간

[삼포 가는 길]의 경우 : 인물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세 인물이 우연히 만나 동행하면서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강화됨.

계절적 배경의 역할

겨울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난방비가 드는 등 더욱 견디기 힘든 계절임 특히 영달, 정 씨와 같은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겨울에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 유지가 곤란함.
----	--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의 애환을 강조하여 표현함.

소설 속 삶의 모습과 오늘날 삶의 모습

[삼포 가는 길]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의 모습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모습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	사회가 개별화·개인화되면서 타인과 유대감을 잃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함.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소외 되어 가고 있음.

1970년대의 시대 상황

1970년대는 1960년대부터 축적되어 온 경제 개발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임.

산업화는 경제 개발, 소득 수준 증대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옴.

농어촌이 해체되면서 농어민의 공향 상실, 도시 빈민층의 형성 등 산업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도 컸음.

그 외에도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 환경 문제, 농촌 공동체의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함.

결말의 효과 파악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정 씨와 영달의 삶에 대해 정확한 결말을 짓지 않음. 인물 중심의 내용 전개에서 객관적 대상인 기차로 서술 대상이 달라짐으로써 여운을 형성함. ‘눈발’과 ‘어두운 들판’이라는 배경을 통해 정 씨와 영달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비유적으로 암시함.



산업화 과정에서 민중들이 겪을 괴로움은 계속되리라는 것을 암시함.

[삼포 가는 길]과 [심청전]의 결말 비교

[삼포 가는 길]의 결말	[심청전]의 결말
정 씨와 영달이 여전히 떠도는 삶을 계속할 것임을 암시함.	심청이 황후가 되고 아버지와 재회하면서 아버지가 눈을 뜸.
불확실한 결말	행복한 결말



고전 소설은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복을 받는 권선징악적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 소설은 다양한 형태의 결말 방식을 보임.

[삼포 가는 길]의 특징

1970년대 산업화의 영향을 급변하는 시대에 사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담아냄.

여운을 남기는 장면을 결말로 제시하여 등장인물이 정처 없이 떠도는 힘든 삶을 지속하게 될 것임을 강조함.

중세 국어 자료→현대 국어 자료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적

창제 동기	우리나라와 중국의 언어생활 차이를 인식함	자주정신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새로운 문자를 창조함	애민 정신, 창조 정신
창제 목적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워 날마다 편히 쓰도록 함	실용 정신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

음운	‘병, ㅁ, ㅓ, .’ 등의 사용 ‘ㅼ, ㅽ’ 등의 어두 자음군을 사용함 방점을 사용하여 성조를 나타냄 두음 법칙과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짐
어휘	‘전 ㅿ.’ 등 현재 쓰이지 않는 어휘가 사용됨
문법	주격 조사 ‘이’가 쓰임 명사형 어미 ‘-옵/옵-’이 사용됨
표기	이어 적기를 함(연철 표기)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의 변화

음운	성조(방점)ㅅ	성조ㅅ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으나, 임진왜란 이후 소멸됨
	니르·고·저	이르고 자 (말하고 자)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이 ‘ㅣ’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두음 법칙의 영향으로 ‘니’가 ‘이’로 바뀜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난 어미 모음의 양성화에 따라 어미 ‘-고저’가 ‘-고자’로 바뀜
	ㅁ·ㅿ·ㅁ·내	마침내	‘ㅿ’가 소실되면서 ‘ㅍ’와 ‘ㅣ’로 바뀜
	·ㅼㅽㅡ·들	뜻을	어두자음군이 소실되고 된소리로 바뀌어 ‘ㅼㅽ’이 ‘ㄸ’이 됨
	퍼·디	퍼지	‘ㄷ, ㅌ’이 ‘ㅣ’ 계열 모음 앞에서 ‘ㅿ, ㅿ’으로 변하는 구개음화로 ‘-디’가 ‘-지’로 바뀜
	·스·물	스물	평순 모음 ‘ㅡ’가 ‘ㅁ, ㅂ, ㅍ’등의 아래에서 ‘ㅍ’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의 영향으로 스물’이 ‘스물’로 바뀜
문법	中동國·국·에		중세 국어에는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음
어휘	어·린	나이가 적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의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을 뜻함
	·노·미	놈이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의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임
	:어엿·비	어여쁘 게	중세 국어에서는 ‘가엾게, 불쌍하게’의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여쁘게, 예쁘게’를 뜻함
표기	·노·미/ ㅽ.ㄹ.·미니· 라	놈이/따 름이니 라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가 널리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 적기가 보편적임
	띄어쓰기ㅅ	띄어쓰 기ㅅ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함

중세 국어 자료→현대 국어 자료

해동의 여섯 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이 복이시니, 옛날의 성인과 서로 꼭 들어맞으시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갈래	악장, 서사시	성격	예찬적, 송축적, 서사적
주제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밝히고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		
특징	훈민정음으로 기록한 최초의 작품으로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총 125장으로 이루어짐 1장과 125장을 제외한 모든 장은 2절 4구체로 구성됨		
창작 동기	새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고 정당성을 부각하여 왕권을 공고히 하려 함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점검하기 위함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위함		

중세 국어 자료로서의 특징

음운	‘.’가 사용됨 모음 조화가 규칙적임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나타냄
문법	‘ㅎ 종성 체언’이 존재함 ‘ㄴ 덧생김 체언’이 쓰임 주격 조사 ‘이’가 쓰임 종속적 연결 어미 ‘-르ㅅ.   ’가 쓰임
표기	각자 병서가 쓰임 이어 적기로 표기함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의 변화

음운	성조(방점)ㅇ	성조x	방점이 임진왜란 이후 소멸됨
	남·ㅁㄴ	나무는	현대 국어의 ‘나무’는 중세 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 ‘-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나무’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나ㅁㄴ’으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나무’만 사용함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ㅇ.ㄴ’과 ‘은’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가 소실되며 현대 국어에서는 ‘은’만 쓰임
	ㅁ.ㄹ.ㅁ애 (ㅁ.ㄹ.ㅁ+애)	바람에	‘.’가 소실되면서 ‘ㅁ’로 바뀜 모음 조화가 혼란을 겪어 조사 ‘애’가 ‘에’로 바뀜
	:도·코	좋고	‘ㄷ, ㅌ’ㅇ ‘ㅣ’ 계열 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도-’가 ‘줄-’으로 바뀜 단모음화의 영향으로 어간의 ‘ㅍ’가 ‘ㅍ’로 바뀜
	·므·른	물은	원순 모음화의 영향으로 ‘물’이 ‘물’로 바뀜
문법	불·휘 :내·히	뿌리가 내가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 ‘이’가 쓰였으나, 근대 국어에 이르러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의 주격 조사로 ‘가’가 쓰임
	ㄴ.ㄹ.샤	나시어	중세 국어에서는 자음 어미 앞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모음 어미 앞에는 ‘-샤-’로 구분하여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시-’만 사용함
표기	기·픈·므·른	깊은 물은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가 널리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 적기가 보편적임
	띄어쓰기x	띄어쓰기ㅇ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함

말을 배우는 아이들은 너무나없이 훌륭한 언어학자다, ‘햇곡식’, ‘햇사과’ 등의 말을 익히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은 ‘곡식’, ‘사과’란 말이 따로 있으니 ‘햇’을 분리하여 그 뜻과 용법을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 그리고 ‘올해 수확한 벼를 짊어 나온 쌀’을 아이는 당연하게 ‘햇쌀’이라고 이른다. 그런데 틀렸다. 어른들은 가차 없이 붉은 색연필로 빗금을 긋고는 ‘햅쌀’이라고 가르친다. 억울한 아이는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 그래!”가 전부다.

그 비밀을 캐기 위해 11세기 고려 말에 수도 송도로 가 보자.. 송나라 사신 손복은 고려 말에 관심이 많아, 고려 말을 소리가 가장 비슷한 한자로 기록하여 책을 남긴다. 그렇게 <계림유사>에 남겨 놓은 단어에는 ‘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쌀은 한 글자인데 손복은 ‘쌀’을 ‘보살’ 두 글자로 적어 놓았다. 그 이유는 있듯이 ‘쌀’은 본래 ‘𪎩.ㄹ’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도 올 수 있었고, 손목의 귀에는 첫머리 ‘ㅂ’과 ‘ㅅ’ 소리가 모두 들리니 ‘보살’로 적은 것이다. 오늘날 쌀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로 이를 확인해 준다. 여러 종류의 쌀을 구별하기 위해 쌀 앞에 다른 단어를 붙일 수 있다.그런데 ‘참쌀’, ‘멥쌀’, ‘입쌀’, ‘좁쌀’ 등을 살펴보면 모두 ‘ㅂ’ 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쌀의 찧기에 따라 차진 쌀과 메진 쌀이 구별되는데 ‘쌀’이 “이던 시기에 각각 ‘ㅈ.𪎩.ㄹ’과 ‘외𪎩.ㄹ’로 되었으니 ‘ㅂ’이 앞의 단어에 붙었다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것이다. 쌀뿐만 아니라 ‘볍씨’, ‘입때’, ‘몹쓸’ 등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여준다. 오늘날 ‘햇쌀’이 아닌 ‘햅쌀’로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쌀’을 먹지만 ‘𪎩.ㄹ’을 먹던 조상의 말을 이어받아 쓰고 있는 것이다.

지문 연구

갈래	설명문
성격	설명적, 예시적, 해설적
주제	‘햅쌀’과 관련된 국어의 역사성
특징	역사적 근거를 들어 쌀과 관련된 단어에 ‘ㅂ’ 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국어 단위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도움

‘참쌀’의 역사적 표기 변화  
ㅈ.ㄹ𪎩.ㄹ(15세기)>ㅈ.𪎩.ㄹ(16세기~17세기)>ㅌ.ㅂ𪎩.ㄹ(17~18세기)>ㅈ.ㅂㅈ.ㄹ(18~19세기)>참쌀(19세기~현재)  
국어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한 까닭  
말 속에 담긴 선인들의 생활과 사고를 이해함으로써 고전 문학 작품들이나 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국어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